

종단소식

조계종

수원 용주사 교구총회

수원 용주사(주지 정락)는 11일 만수리실에서 교구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97년도 결산 및 기타 중요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수덕사 신도회 간부연수

예산 수덕사(주지 법담)는 14~15일 황하루에서 교구본말사 신도회 간부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원각사 만등불사 회합

선산 원각사(주지 대혜)는 20일 '중창불사를 위한 만등불사 회합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는 직지사 회주 녹원스님 초청법회를 비롯 법배, 승무, 바라춤, 만등탑돌이 등이 진행된다.

태고종

신협이사장 인곡스님 재선

신용협동조합은 2월 25일 봉원사에서 제13차 정기총회를 열고, 제 5대 이사장에 총무원장 인곡스님(사진)을 재선출했다. 또 9억3천4백여만원의 98년도 예산을 승인했다.

동방대 졸업생 27명 배출

동방대학교(학장 정태혁) 졸업식이 2월24일 강당에서 열렸다. 27명의 졸업생이 배웠으며, 총영예씨(불교학과 4)가 최우수상(종정상)의 영예를 안았다.

천태종

5개사찰 정기 합동법회

성통사(주지 박석구) 상봉사(주지 김경찬) 명화사(주지 김도원) 명화사·구강사(주지 정월재)는 1일 관문사 4층 대법회장에서 첫 합동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사진)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총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해안 정안사 법당 낙성

해안 정안사(주지 박무인)는 21일 오전 11시 법당 낙성식을 갖는다. 40여명의 규모의 법당에는 관음불상이 봉안된다. 무안스님은 '법당 낙성식을 계기로 부처님의 정정한 법음과 광명이 IMF 한파로 경색돼 있는 불자들에게 용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각종

98년 장학생 33명 확정

봉리원(봉리원장 성초)은 2월26일 회의실에서 제170회 원의회를 열고, 98년 장학생 선발인원을 확정했다. 이날 원의회는 회장장학생 30여명과 중비생 3명을 각각 선발기로 합의했다. 또 제8회 진각대학 전문과정 12명과 기초과정 11명에 대한 자격을 사정하고 모두 통과시켰다.

관음종

신임 집행부 임명장 수여

총무원(원장 홍파)은 2월24일 논산 관음사에서 신임 집행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정종 대천스님을 비롯 40여명의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마련된 수여식에서 원로의장 및 호법원장 해공스님, 총무부장 지섭스님, 교무부장 법명스님 등 총 26명이 임명장을 받았다.

총화종

만경사 국태인안 방생 법회

천안 만경사(주지 청해)는 2월26일 서산 동산포 자동차경기장에서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4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청해스님은 법어를 통해 '국태인안과 IMF 극복을 위해 불자들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미타종

라오스불교회와 결연 추진

총무원(원장 신중석)은 2월 25일 회의실에서 간부 연석회의를 갖고, 8월18일 창종 5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기로 결의했다. 또 신년사업으로 6~8월 경 중국 기공사 초청 강연회 및 합동법회, 라오스불교회와의 자매결연 등을 추진키로 했다.

봄맞이 산악불심 움튼다

영주불교산악회 3·1절 위기극복 산행법회 '광주' '한밭' 등 전국서 시산제·환경운동

새봄을 맞아 전국 23개 불교산악인 회들의 산행이 본격적으로 기지를 펴고 있다. 경북 영주불교산악회(회장 김원호)는 1일 도봉산 망월사일대에서 '3·1절 기념 산행법회'를 실시했다. 이번 산행은 서울 원심회, 불이산우회, 금강메이리와 함께하는 첫 합동법회로 치러졌다. 망월사에서 산행준비회를 마친 불자들은 목탁소리에 맞춰 '석가모니불' 정경을 하며 정상을 향해 오르기 시작했다. 6살짜리 여자아이부터 70대의 할아버지까지 동참한 불자들은 산을 오르며 봄내음을 만끽했다. 특히 정상에 오른 2백50여 회원들은 시방세계 부처님을 향해 국난극복을 발원하는 즉석 기원법회도 올려

주위의 눈길을 끌었다. 이번 산행에는 어음부도로 경제난을 체험하고 있다는 강모씨(강북구 우이동)도 동참했다. "삼독에 저든 마음의 때를 땀속에 담아 춘풍에 날려보내고 싶다"는 강씨는 "산사의 부처님을 참배하고 산행을 하니 마음이 후련하다"라며 모처럼 큰 웃음을 보였다. 금강메이리 강대원회장은 "IMF 한파로 산을 찾는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 부족 늘었다. 산행시 홀로 산행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인사 나누기'를 위해 산행수칙으로 참가할 계획이다"라며 산행법회도 적극 실시할 것임을 시사했다. 부산불교산악회는 경남 고성 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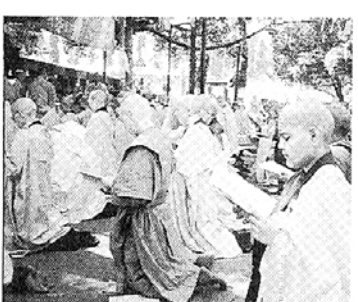
산 문수암, 대전 한밭불교산악회는 운주사일대에서, 광주불교산악회는 김제 금산사일대에서 8일 각각 시산제, 산행법회, 환경운동 등을 실시했다. 또 전주불교산악회는 11일 임원회의를 갖고 산행지를 결정하는 등 대부분의 산악회가 15일, 22일, 29일 각 봄맞이 산행법회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3~4월 산행은 불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산사가 인접한 봄꽃길로 산행코스로 잡고 있다. 산악인불자회는 올 봄 산행에서 회원확대를 통한 포교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올 춘산에는 불심이 만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준근 기자



영주불교산악회 회원들은 3·1절인 1일 도봉산 산행법회를 통해 신심을 다지고 봄의 정취를 만끽했다.



수계법회 후 성운스님(앞줄 왼쪽에서 여섯번째)과 3사 9중사가 기념촬영을 했다. 앞줄 오른쪽에서 다섯번째가 권우스님.



각국 수계승들이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부디가야 대법 보리수 아래서 다 음 행사 순서를 기다리며 경전을 읽고 있다. 맨앞 사람이 인도의 비구니.

9백년만에 남방비구니 계맥 잇다

인도서 국제삼단대계 32개국 135명 수계

남방불교 비구니 계맥이 다시 이어졌다. <본지 161호 22면 참조> 국제불교세계총회(총재 성운스님)와 인도마하비디야회는 2월 15일부터 23일까지 석가모니 부처님의 성도지인 인도 부다가야와 대각사에서 '국제삼단대계 계맥'을 봉행, 32개국 1백35명에게 비구니계를 수계했다. 수계자 가운데는 11세기 이래 맥이 끊겨 비구니가 없는 인도 네팔 스리랑카 태국 등 남방불교권에서도 참가, 9백여년만에 비구니 계맥이 잇다.

이번 수계는 대만 불광사 주지 성운스님이 득계화상(得戒和尚)으로 증명했으며, 한국의 전국비구니회 회장 권우스님을 비롯 대만 티벳 등의 승려 60년 이상된 원로들이 3사 9중사로 참석했다. 권우스님은 "비구니 맥이 이어짐으로 승단의 두발이 갖춰진 것"이라며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는 일만 남았다"고 이번 수계법회의 의의를 평가했다. 한편 이번 수계법회에 출가 51년만에 비구니계를 수계한 인도 출가자가 있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사찰 금모으기 확산

천태종 한달간 접수 조계사·한마음선원도

경제난 극복을 위한 금모으기 운동이 사찰까지 확산되고 있다. 부산 상광사(주지 박석우)는 2월1일부터 3월 2일까지 나라사랑 금모으기 운동을 전개, 총 2만5천5백원을 동종 지정에 전달했다. 또 서울 성통사(주지 박석구) 상봉사(주지 김경찬) 명화사(주지 김도원) 명화사·구강사(주지 정월재) 등은 1일 관문사에서 가진 합동법회에서 금모으기 행사를 벌여 7천6백41원을 삼엄은행 우편통지함에 전달했다. 안양 한마음선원(원장 대행)도 1일 금모으기 행사를 열고, 9천5백64원을 안양시농협에 전달했다. 조계사도 8일 금모으기 행사를 가졌다.

수도원 설립전 천불절안

청주 수도원(주지 보혜)은 15일 설립전 천불 절안식 및 낙성식을 봉행한다. 각종 법회와 연수, 전문문화공간과 수행공간 등으로 이용될 설립전은 92년 지하1층 지상2층 총 6백여평의 규모로 92년 불사를 시작 6년만에 낙성된다. 지하 1층에는 식당과 청소년 유흥실, 1층에는 사무실, 회의실, 요사채가, 2층에는 설립전이 들어선다.

익산 제석사지 사적지정 예고

백제무왕대 창건사찰

전북 익산 제석사지가 곧 사적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제석사지는 익산 왕궁리 5층석탑(국보 제289호)에서 동쪽으로 1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폐사지. 93년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목탑지, 금당지, 강당지의 기반이 확인됨에 따라 축조시기가 미륵사지(사적 제150호)와 거의 동시대임이 밝혀지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특히 발굴과정에서 제석사라는 명문이 새겨진 유물이 발견돼 백제 무왕대 제석전을 주조로 모시는 내불당으로 추정된 사찰이었음이 밝혀졌다. 또 기록에 전하는 7층목탑 속의 유물이 왕궁리 5층석탑에서 발견된 금관의 금강경과 청색의 맑은

불사리법과 비슷해 제석사가 폐사된 뒤 중창하는 대신 왕궁리 5층석탑을 건립, 그 유물을 봉안한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사암련 임원 개편 회장에 현지스님 선출

광주불교사암련회(회장 상명)는 2일 무각사내 사무실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제11대 회장에 원효사 주지 현지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회장 인터뷰 4면) 또 이날 총회에서는 감사에 성호(관음암), 상운(총통사)스님을 선출했다. 또 5일 총회에 광민(무각사) 교무에 정인(규봉암) 제무에 명신(연화사)스님 등이 임명됐다. 이번 새 임원진 구성은 현 회장 상명스님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이뤄졌다.

국제 청소년 수련원 기공

안성 도안사 6천평부지 5백명 수용 규모

안성 도안사(주지 승암)는 1일 청소년 수련원 기공식을 가졌다. 99년 12월 완공예정인 청소년 수련원 로트스 유스호스텔은 국제종교 교류의 장으로 마련된다. 로트스 유스호스텔은 6천여평 규모에 5백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관, 정서함양관, 명상센터 등이 들어서는 종합 청소년 수련센터로 조성된다. 승암스님은 순 휴직으로 지을 예정인 수련원을 청소년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종교와 상관없이 개방할 방침이다. 태고종 승정 도봉스님 8일 백련사서 영결식 도봉 태고종 승정이 6일 오후2시 10분 서울 용문동 백련사에서 열렸다. 21년 백련사에서 경법스님을 은사로 특도한 스님은 58년 백련사 주지, 71년 서울교구 총무원장을 역임했다. 세수 77세, 법랍 67세. 영결식은 8일 백련사에서 봉행됐다.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팔괘 만다라 액자 신비한 작용...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예천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연락하시는 대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으로 일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모범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춘천 옥산가옥의 신비를 아십니까? 유아함과 풍류를 살리는 동양의 보석 신경동, 고철암, 당노, 잇몸질환 등의 난치병치료,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뇌내모르핀의 분비를 활성화 함으로써 노화방지는 물론 현대인의 잦아한 병(30~50대 여성의 화병, 불안, 신경질, 불면증, 피부병, 직장인·수험생건강 등)을 예방 치유합니다.